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박 혜 정

새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 영 숙[†]

LG이노텍 마음누리상담실

본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사이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로써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높이는 요인을 탐색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특수학교와 병원, 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머니 127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온정적 양육 행동은 감소하고, 거부적 양육 행동과 허용적 양육 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 행동이 증가하고, 거부적 양육 행동과 허용적 양육 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허용적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거부적 양육 행동 사이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의 관계에서만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 사이에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 본 논문은 2016년도 가을 임상심리학회에 발표된 포스터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영숙, LG이노텍 마음누리상담실, E-mail : kysjwh@hanmail.net

DSM-5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tic Spectrum Disorder; 이하 ASD)는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 중 하나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및 흥미, 활동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SD 아동은 학령 전기에 약 50%가 구어를 산출하지 못하고, 약 75%는 지적 장애가 있는 등 대개 발달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ASD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하다(Brei, Schwarz & Klein-Tasman, 2015; Smith, 1999). 여러 연구들에서 ASD 아동 부모는 정상 발달을 보이는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다운 증후군, 그 외 다른 장애를 가진 부모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고, 우울 및 불안, 신체적 불평, 소진, 불쾌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인옥, 이원령, 2011; Bengt, 2002; Dumas, Wolf, Fisman & Culligan, 1991; Eisenhower, Baker & Blacher, 2005; Huang, Yen, Tseng, Tung, Chen & Chen, 2014; Weiss, 2002). ASD 아동 부모가 다른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보다 더 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ASD 아동 부모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 모집의 한계 때문에 지적 장애를 함께 포함하여 발달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뇌병변 장애 및 뇌성마비와 함께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며(박종엽, 양희택, 2013; 전찬영, 서미아, 2013; 차혜경, 2008; 최경화, 2011; 한경임, 송미승, 박철수, 2003; 한미애, 장기연, 광내화, 2011; 한석우, 2011), ASD로만 한정된 연구는 많지 않다(김혜자, 정혜숙, 2014; 박애선, 이준상, 2012; 이신화, 2014; 이애란, 홍선우, 김지수, 주세진, 2010; 한선혜, 박승호, 2015). 그러나

연구 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연구를 하는 것은 ASD 아동 부모의 심리적인 특성 및 양육 경험을 이해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는 전형적으로 주양육자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아동을 돌보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아버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man, 1991; Sharpley, Bitsika & Efremidis, 1997; Phetrasuwan & Miles, 2009). 아동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 경우 아동의 제반 능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세연, 2012;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는 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데, 정상 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적게 보이며, 거부적인 양육 행동과 허용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숙, 문혁준, 2005; 손영지, 박성연, 2011; 심자형, 이양희, 2005). 발달장애 및 신체장애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 행동을 보이는 지에 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김민형, 광승철, 김기룡, 2015; 김수경, 2009). 따라서 정상 아동이나 다른 장애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ASD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적응력, 발달과 치료에 다

시 영향을 미치는 등 연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김현미, 도현심, 2004; 이인학, 최성열, 송희원, 2013; Osborne & Reed, 2010).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연구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으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의 감소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내적 기능에 관심을 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김상용, 오혜경, 2010; 김지혜, 진미경, 2015). Ryff(1989)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의 합을 말하며, 심리적 안녕감의 관점에서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ASD 아동 어머니는 일반 아동 및 다른 장애를 가진 아동 어머니에 비해 더욱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양육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정서를 감

소시키는 등 심리적 안녕감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애선 외, 2012; 박애선, 2013; Pottie & Ingram, 2008),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진, 장영은, 2013; 민하영, 2011; 이종신, 문혁준, 2010). 특히 발달장애 아동(지적 장애 106명, 자폐 장애 63명, 뇌병변 장애를 포함한 기타 16명)을 대상으로 한 김지혜 외 연구(2015)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져, ASD 아동 어머니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ASD 아동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 내적인 요인이 있겠으나 외적인 요인도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 중 ASD 아동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부담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며, 양육 부담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다(Benjamin, Connie & Paul, 2013; Benson, Fisher, Diana, Simon, Gamache, Tessler & McDermeit, 1996; Bishop, Richler, Cain & Lord, 2007; Winnie & Yvonne, 2010에서 재인용; Stuart & McGrew, 2009).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친구, 친척, 이웃, 배우자, 동료, 종교단체, 사회조직, 전문가,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타인에 의해 제공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언급되며, 사람들은 부모, 친구 그리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 심리적인 문제들을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양돈규, 1998; Dunst, Trivette & Deal, 1988; 김수경, 2009에서 재인용).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이 있음이 밝혀졌

으며(김인옥 외, 2011;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특히 ASD 아동 부모가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할 때 낮은 삶의 질을 보고하고,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ohen & Wills, 1985; Ekas, Lickenbrock & Whitman, 2010; Leann, Jan & Marsha, 2011).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 사이에서 매개 효과로 작용하는지 혹은 조절 효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적 지지가 조절 변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불편감이나 가족 적응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진 한편(정현주, 2008; Wolf, Noh, Fisman & Speechley, 1989),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가정하고,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박애선, 2013; 이선형, 이경림, 임춘희, 2009; 이숙자, 오수성, 2006; 이지현, 2013).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ASD 아동 어머니로만 한정하고, ASD 아동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서 심리 내적인 요인인 양육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 사회적인 요인인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SD 아동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높이는 요인을 탐색하여 ASD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양육 행동 간에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양육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특수학교와 병원, 치료기관을 이용하는 ASD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 대상을 제한하였으며, 자녀의 ASD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ASD로 진단 및 소견을 받거나 진단 평가에서 ASD로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130부를 수거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한 3부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총 127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양육 스트레스

1990년 Abidin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배인숙(1993)과 신숙재(1997)가 번안하고 이한우(2002)가 재구성

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PSI는 크게 아동 영역 하위 척도, 부모 영역 하위 척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하위 척도로 나누어져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한우(2002)의 연구에서 2차에 걸친 수정 보완 후 아동 영역 12문항, 부모 영역 12문항으로 나누어 총 24문항으로 축소하였다. Likert 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한우(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0으로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0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1989년 Ryff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김혜원과 차정호(2011)가 번안 및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6개 문항으로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명소 외(2011)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자아 수용이 .76, 긍정적 대인관계가 .72, 자율성이 .69, 환경 통제가 .66, 삶의 목적이 .73, 개인적 성장이 .70으로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자아 수용이 .86, 긍정적 대인관계가 .86, 자율성이 .69, 환경 통제가 .71, 삶의 목적이 .81, 개인적 성장이 .7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1985년 박지원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 및 보완하였고, 장미선(2005)이 다시 재구성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이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은 Likert식 3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장미선(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5로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6으로 나타났다.

양육 행동

1995년 박영애가 제작한 80문항의 양육 행동 척도를 어주경(1998)이 37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으며, 하위 척도는 온정 및 수용 행동, 거부 및 제재 행동, 허용 및 방임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 및 수용 행동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등의 행동을 포함하며, 거부 및 제재 행동은 부정적 평가 및 감정 표현,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훈육, 무시와 비하 등을 말하고, 허용 및 방임 행동은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익애, 무책임, 무관심형 방임 등을 나타내는 양육 행동을 뜻한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되는 양육 행동을 평소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주경(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온정 및 수용 행동이 .87, 거부 및 제재 행동이 .79, 허용 및 방임 행동이 .75로 나왔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온정 및 수용 행동이 .88, 거부 및 제재 행동이 .88, 허용 및 방임 행동이 .8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sion 23.0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사회적 지지, 양육 행동의 하위 요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사이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인 127명의 ASD 아동 어머니와 자녀인 ASD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40대 83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N=127)

변인	구분	빈도(N)	백분율(%)
어머니의 연령	20대	1	0.8
	30대	35	27.6
	40대	83	65.4
	50대	8	6.3
어머니의 취업 상태	전업주부	89	70.1
	시간제 부분 취업	24	18.9
	전일제 취업	14	11.0
ASD 아동의 성별	남자	102	80.3
	여자	24	18.9
ASD 아동의 소속	어린이집 및 유치원	23	18.1
	초등학교	57	44.9
	중학교	19	15.0
	고등학교	25	19.7
	기타	3	2.4
장애등급	1급	53	41.7
	2급	38	29.9
	3급	9	7.1
	장애등급 받은 적 없음	27	21.3

명(65.4%), 30대 35명(27.6%), 50대 8명(6.3%), 20대 1명(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상태는 전업 주부 89명(70.1%), 시간제 부분 취업 24명(18.9%), 전일제 취업 14명(11.0%)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인 ASD 아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ASD 진단에 있어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자주 진단된다는 점과 일치하게 남아가 102명(80.3%)으로 여아 24명(18.9%)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2015). 소속은 초등학교 57명(44.9%), 고등학교 25명(19.7%), 어린이집 및 유치원 23명(18.1%), 중학교 19명(15.0%), 기타 3명(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등급은 1급 53명(41.7%), 2급 38명(29.9%), 장애등급을 받은 적 없는 경우 27명(21.3%), 3급 9명(7.1%)의 순서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양육 행동의 상관관계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총점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요인, 사회적 지지, 거부적 양육 행동, 허용적 양육 행동, 온정적 양육 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모든 측정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심리적 안녕감($r = -.57, p < .001$),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각각 $r = -.53, r = -.50, p < .001, r = -.28, p < .01, r = -.60, p < .001, r = -.47, p < .001, r = -.27, p < .01$), 사회적 지지($r = -.40, p < .001$), 온정적 양육 행동(r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N=1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양육 스트레스	1											
2. 심리적 안녕감 총점	-.57***	1										
3. 자아 수용	-.53***	.86***	1									
4. 긍정적 대인관계	-.50***	.79***	.63***	1								
5. 자율성	-.28**	.58***	.37***	.27**	1							
6. 환경 통제	-.60***	.79***	.76***	.56***	.34***	1						
7. 삶의 목적	-.47***	.87***	.69***	.62***	.47***	.68***	1					
8. 개인적 성장	-.27**	.77***	.56***	.53***	.42***	.43***	.62***	1				
9. 사회적 지지	-.40***	.56***	.52***	.67***	.11	.48***	.39***	.38***	1			
10. 거부적 양육 행동	.46***	-.36***	-.33***	-.27**	-.29**	-.32***	-.36***	-.15	-.22*	1		
11. 허용적 양육 행동	.25**	-.21*	-.07	-.14	-.19*	-.19*	-.24**	-.19*	-.18*	.03	1	
12. 온정적 양육 행동	-.44***	.44***	.40***	.34***	.30**	.42***	.41***	.22*	.32***	-.57***	-.18*	1

* $p < .05$ ** $p < .01$ *** $p < .001$

= -.44, $p < .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 행동 및 허용적 양육 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r = .46, p < .001, r = .25, p < .01$).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지지, 온정적 양육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각각 $r = .56, r = .44, p < .001$), 거부적 양육 행동 및 허용적 양육 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36, p < .001, r = -.21, p < .05$). 특히 심리적 안녕감을 6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했을 때, 온정적 양육 행동과 심리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 요인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각각 $r = .40, r = .34, p < .001, r = .30, p < .01, r = .42, r = .41, p < .001, r = .22, p < .05$), 사회적 지지와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각각 $r = .52, r = .67, r = .48, r = .39, r = .38, p < .001$), 자율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부적 양육 행동은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 삶의 목적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각각 $r = -.33, p < .001, r = -.27, p < .01, r = -.29, p < .01, r = -.32, p < .001, r = -.36, p < .001$), 개인적 성장과는 상관이 없었고, 허용적 양육 행동은 자율성, 환경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r = -.19, r = -.19, p < .05, r = -.24, p < .01, r = -.19, p < .05$),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과 비슷하게 사회적 지지는 온정적 양육 행동과 정적 상관($r = .32, p < .001$), 거부적 양육 행동 및 허용적 양육 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22, r = -.18, p < .05$). 양육 행동의 하위요인 사이에서는 거부적 양육 행동과 허용적

양육 행동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거부적 양육 행동과 온정적 양육 행동, 허용적 양육 행동과 온정적 양육 행동 사이에서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r = -.57, p < .001, r = -.18, p < .05$).

AS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하위요인 사이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와 허용적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거부적 양육 행동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 사이에서만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즉,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 변인인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57, p < .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종속 변인인 온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4, p < .001$).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온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하였으며($\beta = .29, p < .01$), 양육 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두 번째 방정식($\beta = -.44, p < .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beta = -.27, p < .01$)에서 줄어들어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부

표 3.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부분 매개효과(N=127)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57	-7.71***	.32	59.49***
2단계					
양육 스트레스	온정적 양육 행동	-.44	-5.45***	.19	29.67***
3단계					
양육 스트레스	온정적 양육 행동	-.27	-2.90**	.25	20.44***
심리적 안녕감		.29	3.04**		

** $p < .01$. *** $p < .001$.

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 = -4.32, p < .001$).

AS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의 하위요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앞선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과 비슷하게 양육 스트레스와

허용적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거부적 양육 행동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서만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 변인인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40, p < .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종속 변인인 온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표 4.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N=127)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40	-4.91***	.16	24.09***
2단계					
양육 스트레스	온정적 양육 행동	-.44	-5.45***	.19	29.67***
3단계					
양육 스트레스	온정적 양육 행동	-.37	-4.23***	.22	17.29***
사회적 지지		.18	2.04*		

* $p < .05$. *** $p < .001$.

다($\beta = -.44, p < .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사회적 지지가 온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beta = .18, p < .05$), 양육 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 -.44, p < .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beta = -.37, p < .0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z = -3.16,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AS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양육 행동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사회적 지지, 온정적 양육 행동, 허용적 양육 행동, 거부적 양육 행동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모든 측정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온정적인 양육 행동은 부적 상관을 가지며, 거부적 양육 행동 및 허용적 양육 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김인옥 외,

2011; 박애선, 2013; 박애선 외, 2012; 이지연 외, 2009; Pottie et al, 2008),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허용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적게 보인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미숙 외, 2005; 김민형 외, 2015; 김수경, 2009; 손영지 외, 2011; 심자형 외, 2005).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도 모든 측정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 모두에게서 온정적 양육 행동이 더욱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리적 안녕감을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해보았을 때, 대부분이 거부적 양육 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개인적 성장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온정적 양육 행동에서도 개인적 성장이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Riff(1989)의 연구에서도 개인적 성장과 부적 정서 간에 상관이 없다고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 결과, 여성 집단에서의 개인적 성장은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와도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개인적 성장을 추구할수록 고정관념과 현실에 부딪쳐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명소 외, 2001; 김혜원, 김명소, 2000). 한편, 허용적 양육 행동은 자아 수용 및 긍정적 대인관계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요인인 자율성, 환경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으며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는 등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

닌 사람일수록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 하위 요인의 대부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으나, 자율성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자에게는 남자에 비해 대인관계의 발달을 더 강조하고 개인주의나 자율성의 발달은 덜 강조하며 (Gilligan, 1993; 김명소 외, 2001에서 재인용), 특히 ASD 아동 어머니의 경우 자율성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분석 이외에 구체적인 경로나 인과관계를 다루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는 서로 관련이 있고,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이자영, 최용용, 2012; Cohen et al, 1985; Ekas et al, 2010; Leann et al, 2011).

둘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 사이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높은 양육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온정적인 양육 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ASD 아동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증진시키고 어머니가 보다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물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와 비슷하게 발달장애, 신체장애, 일반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에서도 높은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희진, 장영은, 2013; 민하영, 2011; 박애선, 2013; 박애선 외, 2012; 이종신, 문혁준, 2010; Pottie et al, 2008).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거부적 및 허용적 양육 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지혜 등의 연구 결과(2015), 양육 스트레스와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 행동 사이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연구 결과는 ASD 아동 어머니와 발달장애 어머니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추후 연구에서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부분 매개하여 온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높은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 수준을 감소시키고, 이는 온정적인 양육 행동의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에(이선형 외, 2009),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 사이에서 조절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비일관적인데,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감을 경감시켜주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Fleming, Baum, Gisriel, & Gatchel, 1982; Lin, Ye, & Ensel, 1999),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극도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밝혀졌다(Cutrona, 1986; Osborne & Rhodes 2001; Ullman, 1996).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ASD 아동 어머니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ASD 아동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이 초래된다. 예를 들면, 유치원 입학에서 거절당하는 경험, 공공시설에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어머니로 하여금 대인관계를 거부하게 만들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박종엽 외, 2013),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ASD 아동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hin(2002)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의 가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국과 한국의 지적 장애 아동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비교했다. 하지만 가설과는 달리 한국의 가정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장애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가족들로부터 거리를 둔 채 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는 지적 장애 아동의 가족에 관한 연구이긴 했으나 이러한 결과는 ASD 아동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ASD 아동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ASD 아동 가족의 경우, 외부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Koegel, Schreibman, Dirlich-Wilhelm, Dunlap, Robbins & Plien, 1992), 수치심과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문제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Park et al., 2010),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AS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양육 행동이 아닌 긍정적이고 온정적 양육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가족을 넘어서 타인과 이웃 등 공동체로부터 ASD 아동을 둔 가정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ASD 아동 부모에 대한 연구는 지적 장애 및 다른 신체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일반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 신체 장애 아동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더욱 높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 장애를 하나로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장애 유형을 나누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ASD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특성을 확인하며, ASD 아동 어머니의 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심리적 고통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별개이고 긍정적인 정서는

부정적 정서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Cacioppo & Berntson, 1999; Ryan & Deci, 2001에서 재인용), 부정적인 양육 행동의 감소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ASD 아동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ASD 아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서 심리 내적인 요인과 심리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그 기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AS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 아동 어머니들에 대한 양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SD 아동 어머니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보다 많은 사례 수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제한이 많았다. Holbert와 Stephenson(2002)에 따르면, 구조 방정식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최소 150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적은 사례 수의 한계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양육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양육 행동 간에 통합적인 경로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며, 선행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 인자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Cohen et al, 1985; Ekas et al, 2010; Leann et al, 2011), 특히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애선, 2013, 이숙자 외, 2006).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사례 수를 모집하여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경로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연구결과도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ASD 아동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적 장애, 다른 유형의 장애, 일반 아동 어머니와 비교하여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ASD 아동 어머니만의 고유한 양육 경험이 있을 것이고, 지적 장애, 다른 유형의 장애, 일반 아동 어머니와의 양육 경험의 차이 검증은 추후 효과적인 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 다른 유형의 장애, 일반 아동 어머니와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책임감이 많고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기 때문에 본 연구는 ASD 아동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Davis와 Carter(2008)의 연구에 따르면, ASD 아동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으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는 아동의 자기 조절과 관련된 어려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에, 아버지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

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적인 역동이 다를 수 있어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ASD 아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경험에 관한 차이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만을 이용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대상자가 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하는 경향성으로 편중되게 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및 직접 관찰 등 다른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보완하고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민형, 곽승철, 김기룡 (2015).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 효능감의 조절효과. 자폐성장애연구, 15(2), 49-66.
- 김상용, 오혜경 (2010). 장애자녀 어머니의 웰빙 연구. 재활복지, 14(1), 139-158.
- 김세연 (201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증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30-339.
- 김수경 (2009).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옥, 이원령 (2011).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7(1), 101-120.
- 김지혜, 진미경 (2015).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8(4), 285-305.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김혜자, 정혜숙 (2014). 자폐성 장애 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30(1), 279-316.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희진, 장영은 (2013).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다중역할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93-607.
- 민하영 (2011).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 영향에서 심리적

- 안녕감의 매개 효과: 중산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1-20.
- 박애선 (2013). 자폐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41(9), 143-165.
- 박애선, 이준상 (2012). 학령기 자폐성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8(1), 25-44.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종엽, 양희택 (2013).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처양태변화의 재구성. *비판사회정책*, 41, 54-94.
- 배인숙 (1993). 자폐아동의 적응 행동 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지,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44.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정미, 황혜원 (2008). 가족소득,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3), 101-122.
- 심자형, 이양희 (2005). 전반적 발달장애(PDD)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8, 235-251.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양돈규 (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4(1), 55-74.
- 어주경 (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옥, 한성희, 박혜준 (2010).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가족의 성숙과 변화.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137-163.
- 이선형, 이경립, 임춘희 (2009).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4), 57-77.
- 이숙자, 오수성 (2006).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1), 27-45.
- 이신화 (2014). 자폐성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애란, 홍선우, 김지수, 주세진 (2010). 자폐성 장애 아동 어머니의 삶의 전환과정. *대한간호학회지*, 40(6), 808-819.
- 이인화, 최성열, 송희원 (201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양육 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22(1), 69-81.
- 이자영, 최용용 (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 연구*, 13(3), 1481-1499.
- 이종신, 문혁준 (2010). 장애아 어머니의 역할 행동 연구: 내외통제성,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0(3), 5-24.
-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 양

- 육 행동에 대한 연구: 주 양육모, 부분 양육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9(2), 441-458.
- 이지현 (201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우 (2002).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선 (2005). 재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찬영, 서미아 (2013).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극복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40-249.
- 정현주 (2008).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3), 47-74.
- 차혜경 (2008).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끝없는 긴장의 재구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화 (2011). 장애아 어머니의 대처전략 유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담론* 201, 14(4), 41-74.
- 한경임, 송미승, 박철수 (2003). 장애 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정서·행동장애연구*, 19(3), 55-66.
- 한미애, 장기연, 궤내화 (2011). 긴장의 연속: 일반초등학교에 장애아동을 입학시킨 어머니들의 일 년간의 경험과 변화.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3), 35-50.
- 한석우 (2011).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돌봄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의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2) 145-161.
- 한선혜, 박승호 (2015). 자폐성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자폐성 장애연구*, 15(1), 87-120.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워크샵 자료집*.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대표역자 권준수).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에 출판)
- Beckman, P. J. (1991).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effect of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5(5), 585-595.
- Bengt S. (2002). Family system and coping behaviors: A comparison betwee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and parents with non-autistic children. *Autism*, 6(4), 397-409.
- Benjamin, Z., Connie, Z. & Paul, L.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Mental Health, Stress and Coping Support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3(8), 1946-1955.
- Benson, P. R. (2006). The impact of symptom severity on depressed mood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ASD: The mediating role of stress proliferatio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6(5), 685-695.

- Benson, P. R., Fisher, G. A., Diana, A., Simon, L., Gamache, G., Tessler, R. C. & McDermeit, M. (1996). A state network of family support services: The Massachusetts Family Support Demonstration Projec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9(1), 27-39.
- Benson, P. R., & Karlof, K. L. (2009). Anger, stress proliferation, and depressed mood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ASD: A longitudinal replicatio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2), 350-362.
- Bishop, S. L., Richler, J., Cain, A. C., & Lord, C. (2007). Predictors of perceived negative impact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2(6), 450-461.
- Brei, N. G., Schwarz G. N., Klein-Tasman B. P. (2015).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in children referred for an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tic evaluation.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27(5). 617-63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utrona, C. E. (1986). Behavioral manifestations of social support: A micro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201-208.
- Davis, N. O., & Carter, A. S. (2008). Parenting stress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ssociations with child characteristic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8(7), 1278-1291.
- Dumas, J. E., Wolf, L. C., Fisman, S. N., & Culligan, A. (1991). Parenting stress, child behavior problems and dysphoria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down syndrome, behavior disorders and normal development. *Exceptionality*, 2(2), 97-110.
- Eisenhower, A. S., Baker, B. L., Blacher, J. (2005). Preschool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yndrome specificity, behaviour problems and maternal well-be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9), 657-671.
- Ekas, N. V., Lickenbrock, D. M., & Whitman, T. L. (2010). Optimism,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0(10), 1274-1284.
- Fleming, R., Baum, A., Gisriel, M. M., & Gatchel, R. J. (1982). Mediating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on stress at Three Mile Island. *Journal of Human Stress*, 8(3), 14-22.
- Holbert, R. L., & Stephenson, M. T. (200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the communication studies, 1995-2000.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4), 531-551.
- Huang, C., Yen, H., Tseng, M., Tung, L., Chen, Y. & Chen. K. (2014). Impacts of Autistic Behavior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n Parenting Stress in Caregiver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4(6), 1383-90.
- Koegel, R. L., Schreibman, L., Loos, L. M., Dirlich-Wilhelm, H., Dunlap, G., Robbins, F. R., & Plienis, A. J. (1992). Consistent stress profile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2(2), 205-216.

- Leann, E. S., Jan, S. G. & Marsha, M. S. (2011).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t Mid-Life Among Mother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2(9), 1818-26.
- Lin, N., Ye, X., & Ensel, W.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4), 344-359.
- Osborne, L. A., & Reed, P. (2010). Stress and self-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conditions.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4(3), 405-414.
- Osborne, L. N., & Rhodes, J. E. (2001). The role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sexually victimized pregnant and parenting minority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6), 833-849.
- Park, S. Y., Glidden, L. M., Shin, J. Y. (2010). 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social support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cognitive delays in vietnam.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3(1), 38-51.
- Phetrasuwan, S., & Miles, M. S. (2009).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4(3), 157-165.
- Pottie, C. G., Ingram K. M. (2008). Daily stress, coping, and well-being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6), 855-864.
- Ryan, R., Deci, E.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6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harpley, C. F., Bitsika, V., Efremidis. B. (1997). Influence of gender, parental health and perceived expertise of assistance upon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2(1), 19-28.
- Shin, J. Y. (2002). Social support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ntal Retardation*, 40(2), 103-118.
- Smith, T. (1999). Outcome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6(1), 33-49.
- Stuart, M. & McGrew, J. H. (2009). Caregiver burden after receiving a diagnosis of an autism spectrum disorder.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3(1), 86-97.
- Ullman, S. E. (1996). Social reactions, coping strategies, and self-blame attributions in adjustment to sexual assaul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4), 505-526.
- Weiss, M. J. (2002).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stress in mothers of typical children, children with autism and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utism*, 6(1), 115-130.
- Winnie W. S. & Yvonne T. Y. (2010). Internalization of stigma for parents of

박혜정·김영숙 /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
Hong Kong. *Social Science & Medicine*, 70(12)
2045-2051.

1차원고접수 : 2016. 10. 23.

심사통과접수 : 2017. 02. 24.

최종원고접수 : 2017. 03. 03.

Wolf, L. C., Noh, S., Fisman, S. N. & Speechley,
M. (1989). Brief report: Psychologica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parents of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9(1), 157-165.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Hye Jung Park

Department of Psychiatry Saeum Hospital

Young Suk Kim

LG innote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 Participates were 127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 who have children receiving treatment from special schools, hospitals, and/or treatment institutes in Seoul and Gyeong-gi do. For the purpose of study, authors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However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jective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Both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yet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jective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Second, psychological well-being partly mediated parenting stress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Third, social support partly mediated parenting stress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The study further discusses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Key words : *Autistic Spectrum Disorder,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